

사이버 스타에 대한 소고

그들의 존재이유, 혁명인가 신상품인가?

사

시사철 모래바람이 불어오는 시각, 오아시스를 끼고 있는 도시, EDEN, 나는 그곳의 아담한 스위스 중 목조주택에서 태어났다. 거대한 정원에 작은 연못이 있는 그런 곳이였다.

석양이 내리고 바람이 불어오면 잔잔한 파문에 놀라 바닥으로 급히 숨어 들던 열대어들이 있는 그런 연못. 옆에 서면 좌측으로 멀리 희뿌연 모래를 날리는 사막이 보였고, 우측에는 축구장이 있어 하나 둘 불이 들어왔다. (아담 http://www.adamsoft.com/adam/)

저는 한국 최초의 사이버 여가수 류시아(柳始芽)입니다. '류시아'라는 이름의 의미는 처음 시(始)와 아(芽)를 써서 새싹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순수한 한국 이름입니다. 즉, 하나의 싹을 피워 하나의 온전한 나무가 되고자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저는 인터넷에서

탄생한 새싹인만큼 네티즌, 더 나아가서는 일반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활동할 것입니다. 저는 단순한 스타가 되기보다는 여러분들과 함께 희망과 사랑,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류시아 http://www.lusia.com/)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들어진 가상 공간의 스타 '아담'과 '류시아'의 홈페이지에 담긴 자기소개 중 일부입니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무한한 상상력과 멀티미디어 기술의 발전으로 만들어 낸 아담과 류시아. 이들은 컴퓨터 안에서 디지털 신호로만 살아간다. 주로 인터넷에서 활동하며 요즘은 그 활동영역을 신문, 방송매체까지 넓히고 있으며 활동영역만큼이나 인기 또한 대단하다. 이는 평범을 거부하는 10대들의 취향에 맞게 만들어진 것으로 합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사이버 스타의 근원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1995년 새로운 멀티미디어사업 아이템을 찾던 일본 호리프로사의 프로젝트에서 출발한 '다테 교코'로 설명된다. 다테 교코의 주요 활동무대는 인터넷을 비롯하여 음반, 라디오, 잡지 등이며 철저한 준비속에서 사이버 스타가 되었다. 당시 평범한 여학생의 이미지로 일본 청소년들의 이상으로 떠올랐다. 이상으로까지 추앙된 다테 교코의 성공비결은 사이버 세계에 익숙한 일본 10대들의 열광적인 반응 때문이었다.

또한 '롬 레이더'라는 영구게임 캐릭터인 '라라 크로프트'도 있다. 그녀는 다테 교코처럼 준비속에 만들어진 사이버 스타가 아니라 '롬

레이더' 게임의 엄청난 성공에 따라 일약 사이버 스타로 발돋움하게 된 것이다.

이들은 국경없는 사이버공간에 존재하면서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캐릭터사업의 성공은 영상산업과 애니메이션 산업 그리고 게임산업에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왔다. 또 하나의 새로운 문화현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캐릭터 사업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춰 우리나라에서도 '아담'과 '류시아'라는 사이버

캐릭터사업의 성공은 영상산업과 애니메이션 산업 그리고 게임산업에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왔다. 또 하나의 새로운 문화현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다

스타를 만들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사이버 스타 '아담'이 공개됐을 때 신세대들, 특히 국내 네티즌들에게 신선한 충격이었다.

마치 실존하는 인물처럼 탄생해 얽힌 이야기를 가지고 있으며 나이 20살, 혈액형 0형, 콘택트 렌즈 착용, 순수한 성격, 짙은 눈썹에 흰철 한 키. 그리고 비공개 오디션으로 선발된 가수의 목소리를 가진 아담은 사이버 스타로서의 조건을 완벽히 갖추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평범을 거부하는 10대들을 대상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이다. 또한

아담은 지난 2월 26일 한국과학기술원 전산학과 명예학생으로 입학했다. 아담은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들어진 가상인물이지만, 첨단 캐릭터 동영상 기술개발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는 이유에서이다. 그리고 CF의 모델로 등장하기도 했다.

한편 류시아의 경우도 아담과 동일선상에 존재하는 인물이다. 다만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사이버 가수라는 점이 관심거리가 되고 있다. 아직은 신세대들에게 널리 알려지지 않았지만 곧 선보일 것으로 예상되

고 있다. 이러한 기대속에 출연하기는 했지만 우려의 목소리 또한 적지 않다. 우선 초기부터 모든 미디어의 관심이 대상이 된 이 두 사이버 스타들의 탄생은 소비문화의 또다른 축을 '생활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미 3백만 명을 넘어선 PC통신과 인터넷 사용자의 대부분이 대중문화 소비층이고, 사이버 스타들의 음반과 방송, 영화출연 등은 필연적으로 소비를 주도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사이버 스타들이 굳이 현실세계의 스타처럼 소비를 부추길 필요

가 있는가 하는 점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보다는 가상공간에서만 할 수 있는 독특한 아이디어를 개발해 보는 것은 어떨까. 그리고 사이버 세계에 몰입하는 10대들의 모습도 문제시 될 수 있다. 아직 가 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10대들이 가상공간에 빠져든다면 자칫하면 현실 도피의 성격을 보일 수도 있다. 한 예로 얼마 전 자동차레이스 게임에 몰입하던 미국소년이 실제로 자동차를 몰다가 여러 사람을 다치게 한 사건이 있었다.

또한 '일제 못에다 이국적인 생김새, 게다가 시류에 휩쓸려 일본의 스타 우상주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성을 갖추지 못한 존재가 인간과 똑같은 행동을 한다는 사실이, 그리고 그 허상에 순진한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매료된다는 것이 올바른 일이나, 아무리 그와 대립 대화를 나눌 수 있다고 해도 그의 얘기는 영혼이 없는 낱말의 조합일 뿐이다' 등의 여론도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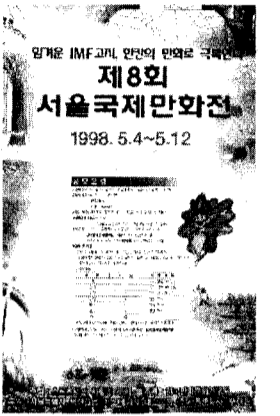
앞에서 언급했듯이 사이버 스타들의 성공에 의한 새로운 문화개념의 형성은 많은 분야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문제점은 노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화적 혁명이라고까지 발전된 사이버 스타들의 출연, '인간은 인간적이지 않지만 인간이 만든 피조물은 인간적이다'라는 피카소의 말을 되새겨 보며 새로운 문화수용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기대해본다.

(김동혁 기자)

문화단신

philmuse 정기 연주회

오는 17일 음대 기악과 학생들의 모임인 philmuse가 제 3회 정기연주회를 갖는다. 장운성 교수(음대 관현악과)의 지도 아래 김봉석(기악 89)군이 지휘를 맡는 이번 연주회에서는 모짜르트의 세레나데와 비발디의 사계중 봄과 여름, 차이코프스키의 세레나데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들은 각각 고전, 바로크, 후기낭만과 시대의 작곡가로서 시대적 특성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우리 귀에 익숙한 곡들로 선정하였다. 두 명의 바이올리니스트가 협연하며 장소는 크라운관, 시간은 오후 7시이다.



제 8회 서울국제만화대전

국내최고의 만화공모 페스티벌인 제 8회 서울국제만화대전은 오는 5월 4일부터 개최된다. 이는 순수 만화공모전으로 우리나라 만화산업의 증진을 위해 내실을 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번 작품소재는 '경제위기 극복방법', '남북통일', 기타 자유주제 등이며 접수마감일은 4월 20일이다. 작품은 주관체인 한국만화문화연구원으로 부문, 제목, 성명, 전화 연락처 등을 표기하여 보내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324-6942로 하면 된다.

인터뷰 - 현대 인포메이션 양수현 대표

가상공간의 류시아, 컴퓨터 산업의 새싹되길



▲ 일본, 영국,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이버 스타들. 이들은 국경없는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사이버 공간에 아담이라는 남자가 나온 지 4개월 남짓. 현대 인포메이션(대표:양수현)에서도 류시아라는 여자가 수를 준비하고 있다. 인간성을 갖지 못한 가상의 존재가 인간과 똑같은 행동을 하는 데에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매료될지는 알 수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 속에서도 사이버 스타들의 데뷔는 계속되고 있다. 이에 대해 양수현 대표는 "그런 열려는 꼭 필요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사이버 스타들에 대한 비판이 '문제점을 정확히 인식하고 지적하는 비판'이어야 함을 강조한다. 새로운 것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나, '그렇지도 모른다'는 기우는 '한국의 3D(3차원 입체그래픽)산업발전에

회박을 놓는 꼴'이라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의 3D산업은 지금까지도 그 산업적 기반이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양사장은 '류시아' 개발을 통해 우리나라가 3D산업 대국으로 성장하길 바라고 있다. 더욱이 3D산업은 한국에 들어온지 불과 3년여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활성화·분화시키면 우리시장을 외국기업으로부터 지켜내고 경쟁력까지도 충분히 가질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최근 탄생한 국내 사이버 가수 1호인 아담(아담소프트)과의 차별성을 묻는 질문에 그의 대답은 재미있게도 "류시아는 여자잖아요" 한다. 하지만 아담

과 류시아의 차이는 그 제작방식에 있다. 아담은 기획사에서 각 부분별로 외부업체에 의뢰해 제작된 반면, 류시아는 자체 제작방식을 택한 것이다. 따라서 직접 컨트롤이 가능해 훨씬 높은 질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인간은 외롭고 고독한 존재입니다. 류시아는 가상 공간 안에서 그런 팬들의 고민을 안아줄 수 있을 겁니다." 양사장은 류시아에 대해 그 자신의 여친친구 얘기를 하는 것처럼 조심스러우면서도 애정을 담아 이야기했다. 그가 말하는 류시아는 단순히 사이버 공간 안의 스타만은 아닌 것이다. "앞으로 우리 는 가상공간과 현실공간과의 벽이 더욱 낮아진 사회에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양선 출몰에 최화비를 세워 근대화해 늦추었던 조선시대의 실수는 반복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가서 길을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류시아, 시작할시, 싹아, 즉 새싹이라는 뜻이다. 류시아의 탄생이 우리나라 3D산업의 새싹이 되어 무럭무럭 커 나가길 바란다. <류지은 기자>

1999 경희창학반세기 미래를 연다 세계를 만든다 1999 경희창학반세기 미래를 연다 세계를 만든다 1999 경희창학반세기 미래를 연다 세계를 만든다

1999년 개교50주년, 21세기를 이끌어 갈 최고의 대학

젊음을 키울수 있는 곳
지성을 키워갈 수 있는 곳
그 젊음과 지성을 키우는 경희대학교 -
지금 미래를 앞당기는 경희대학교가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 경희사랑저금통 기금 참여 안내 ◆◆

'경희사랑은 경희사랑저금통에서부터'라는 경희사랑 실천운동의 하나로 시작된 경희사랑저금통 예금기탁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개인의 분산된 힘은 미약하나 결집된 힘은 위대합니다. 경희사랑 저금통 기탁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경희사랑의 첫걸음입니다.

- ▶ 등록금 한번 더 내기 운동
 - 9학기 등록금, 모교발전의 튼튼한 토대입니다.
- ▶ 장학금 되돌려 주기 운동
 - 영원히 변치 않는 교직, 후배들에게 장학금을 되돌려 줍시다.

◆ 여러분의 정성과 후원으로 마련되는 경희발전기금, 이렇게 쓰입니다 ◆

- ▶ 대강당 완공
- ▶ 개교50주년기념관 건립기금 조성
경희 발전의 획기적 전환점이 될 1999년 개교50주년기념사업 기금을 위한반 경희인의 후원 운동을 전개합니다.
- ▶ 21세기 특별목적사업기금 조성
 - 교육시설 확충(특수교육공간 건설 및 문화공간 확충)
 - 학술연구/첨단과학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
 - 비교우위에 설 수 있는 우수교원 및 연구원 확충
 - 종합 학술 정보 체계 수립/도서관 장서 구입
 - 문화예술/창작/체육진흥기금
 - 장학/각종 고시육성 후원기금

- 목 적 ; 학교 발전기금 조성(애교심 및 자축심 함양)
- 참 여 대 상 ; 동문, 재학생, 학부모, 교직원, 일반인
- 저금통 배부안내
 - 1인1개 배부원칙, 개교50주년 기념사업회에서 배부(본관모형으로 제작)
 - 동문일 경우 총동문회에서 배부받을 수 있으며, 재학생일 경우 개교50주년기념사업회를 방문하여 배부받을 수 있습니다. (총동문회 ☎ 744-8855/6, 3672-0616 Fax. 3672-4994)
- 기 탁 방 법
 - 경희사랑저금통에 저축된 금액을 가까운 서울은행에 무통장 입금하신후 개교50주년기념사업회로 입금자 성명, 입금액을 연락해 주십시오.

무통장입금 (예금주:경희대학교)
경희사랑저금통 기금 (서울은행) 17308-9505323

- 계좌번호는 경희사랑저금통 밑부분에 있습니다.
- 경희사랑 저금통을 가득 채우면 개교50주년기념사업회로 직접 방문해 주셔도 좋습니다.
- 세제감면 : 출연자가 기탁한 기부금에 대하여 세제감면 혜택을 드립니다.
- 관련법규 - 소득세법 제8조의 2(상속재산 기금출연), 소득세법 제66조의 3(기부금 특별공제) 소득세법 규제법 제49조(법인소득 손금 또는 개인사업소득 손금)

경희대학교 개교50주년기념사업회

(130-701)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동 1 Tel:961-0931/2 Fax:961-0906